

인 사 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임종자의 주보이신 성 요셉 성월에 출범한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본인이 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웠으나 부회장 송 꼬레띠 선생님과 홍영선 선생님, 임원들 그리고 협회를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의 힘을 믿었기에 소박한 뜻을 품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전년도에 이미 세워진 사업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각 분야별 회원 증가에도 주력하고 호스피스 홍보 및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들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결실이 어느정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기에 몇가지 느꼈던 일들을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일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호스피스하면 대개는 간병인 정도로 알고 있거나 심지어는 "호스-피스, 호스는 말, 피스는 조각, 말 조각이 어떻단 말인가"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까지 만나볼때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홍보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한 다른 호스피스 협회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대내외적, 국제적으로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한국의 호스피스 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산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한해를 돌아보면서 금년도에 협회에서 실시한 교육, 피정, 해외 연수 및 교구 대표자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 인사도 미리 올립니다.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신 분과 남아 있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 회원 한분 한분에게 성령의 불꽃이 성탄의 축복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작은 사랑과 기도를 전합니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장 노유자 수녀